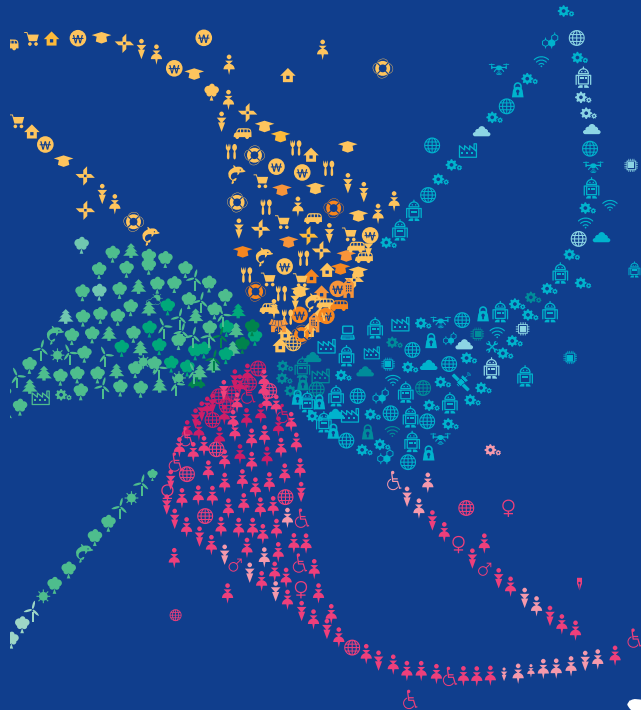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 국가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 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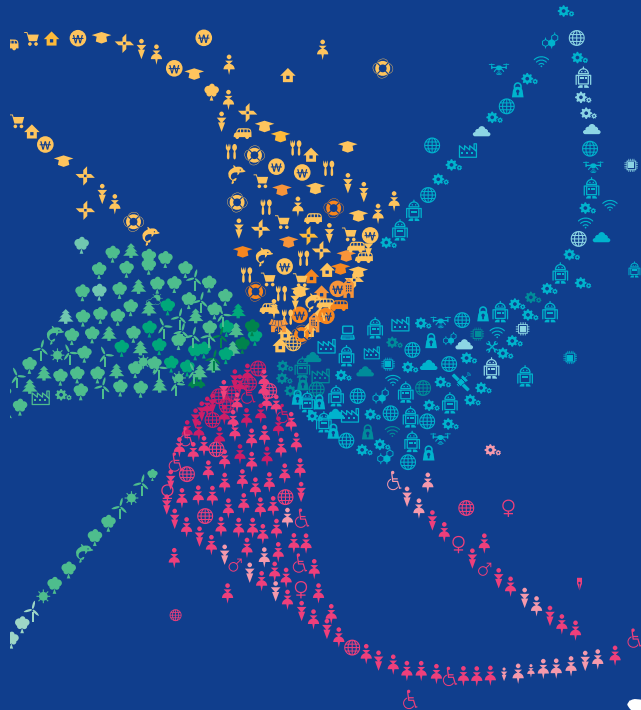
일	시	2018. 5. 24(목) 14:00 - 17:30
장	소	더케이호텔서울(구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 B(아트홀 3층)
주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주 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주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DI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 국가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 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

주 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주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DI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세션1 미래세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7
세션2 청년 멘토에게 듣는다	21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

일시 2018. 5. 24(목) 14:00 - 17:30

장소 더케이호텔서울(구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 B(아트홀 3층)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프로그램

시간	주요일정
13:00-13:50	등록
	[개회식] 사회 : 방송인 박슬기
14:00-14:30	축하공연 청소년 북동아리 FK 주니어, 페스테자 개회사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세션 1] 미래세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4%를 위한 학교를 100%를 위한 공간으로 (하자센터 10대 연구소)
	청소년노동인권, 비전과 대안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목소리팀 여기 청소년 있어요-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등한 권리를 (광주꿈드림청소년단×세학자)
	중도입국청소년에게 꿈을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14:30-16:00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1∞(One finity))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다-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구시 수성구청청소년수련관)
	청년 목소리팀 통일과 평화, 청년의 이름으로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나는 취업률이 아닙니다-숫자에 가려진 청년의 삶에 대해서 (청년유니온)
	돈 벌이 수단이 아닌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한 민달팽이의 움직임 (민달팽이유니온)
16:00-16:10	[휴식]
	[세션 2] 청년 멘토에게 듣는다
16:10-16:50	청년 스토리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최이현 모어댄 대표이사)
	다름이 재능이 되기까지 (김희수 ㈜커피지아 대표이사)
16:50-17:00	[휴식]
	[폐회식]
17:00-17:30	토크콘서트 정책제안서 전달식 및 시상식 폐회

개회사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개
회
사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특별세션입니다. 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님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룡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될 9개팀 구성원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념으로 청년사업가로 성장하여 오늘 스토리와 감동을 전해주시길 최이현, 김희수 두 분의 대표이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여러 측면에서 뜻이 깊습니다.

우선은 국민주권시대에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는 측면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부딪히고 있는 교육, 인권, 일자리, 노동조건, 선거권, 주거문제, 통일 등의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현장에는 주로 그들만이 참여하여 정책으로 실천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는 정부부처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원장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기업체 임직원, 유권자 등 다양한 어른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은 참가한 9개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소책자로 만들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소중한 제안들은 100명으로 구성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가정책에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시대의 한 모습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두 명의 청년사업가로부터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다름이 재능’이 될 수 있음을 선사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쉽게 느꼈던 것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처음 기획한 행사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어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여기에 발표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석하신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가운데도 더 좋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할 수 있는 별도의 과정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청소년분야 국가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도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정책연구개발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공연을 해주신 FK주니어와 페스티벌 동아리 여러분,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역동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주실 방송인 박슬기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마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반갑습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해구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행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룡 이사장님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병국 원장님, 그리고 두 기관의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원회의 심미선 위원님과 박준식 위원님 등 이번 행사를 위해 노력하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오늘 이 자리는 10년 20년 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과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미래 세상을 잠시 듣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프로그램을 맨 앞에 배치한 것은 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기 위해 미래의 주인공인 그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청년의 삶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경쟁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미리 주어진 환경은 그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희망을 갖고 나아가야 할 사회 진출의 길은 매우 좁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 해결책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학생들과 전문가, 일반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저희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심미선 위원님, 박준식 위원님 등 이번 행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애를 쓰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병국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란 주제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이 노동인권, 참정권, 주거권 등 다양한 권리실현을 위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

에게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공부 잘하는 일부의 소수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학생 전체를 위한 학교,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당당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 새로운 방식의 교육제도 등 청소년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또한 일자리 안전망의 확보, 세입자 중심의 주거패러다임 전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청년세대의 참여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이현 모어댄 대표이사와 김희수 (주)커피지아 대표이사는 자신들의 생생한 창업경험을 발표함으로써 청년멘토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성세대가 이해하고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인다면 대한민국은 미래세대를 품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훨씬 더 포용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축하공연도 함께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축제의 한마당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잘 반영돼 미래세대인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1

미래세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4%를 위한 학교를 100%를 위한 공간으로

서울시립 하자센터 10대연구소

성윤서, 갈민경, 장서연, 최윤령, 김유민, 김나연, 김가람, 송지윤, 김수아

하자센터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로 다양한 세대를 연결하여 새로운 공공성의 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 진로허브임. 하자센터 10대 연구소는 청소년 당사자의 시각으로 청소년의 문제를 정의, 탐구하는 청소년 주도 인문사회과학 연구소임. 현재 청소년의 문제를 다각도에서 연구하는 4개의 연구팀(입시와 인권, 10대 성소수자, 10대 여성, 학교 내 서열)이 활동하고 있음.

4%만을 위한 학교는 왜 문제인가

- 다수의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듯이, 4% 즉 1등급 학생을 위주로 학교 내의 기회와 자원이 분배되고 있음.(시사IN, 2017¹⁾, 한겨레, 2016²⁾) 10대 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을 인터뷰 한 결과를 토대로 파악한 학교의 현실은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였음. 동아리 참가 등 일상 학교생활에서뿐 아니라 다음 진로에 영향을 줄 교내 대회, 해외 교류 기회 등에서도 상위권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은 배제되고 있었음.
- 기회와 자원만 덜 주어지는 것이 아님. 4%에 속하지 못하면 존재 자체의 가치가 위협을 받음. 일례로 교지나 학교신문 등에서 다루어지는 동문들도 언제나 명문대에 진학한 상위권 학생들임을 10대 연구소는 발견했음. 그 외의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임.
- 4%를 위한 학교는 어떤 사회를 만들게 될까? 성과에 의해 차별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게 됨. 그렇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성적이 낮으면 기회 박탈이 당연한 것이라고, 성과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100%를 위한 공간을 위한 제안

- 모두를 위한 학교는 결국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교임. 학생 자치기구 강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함.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 발언 내용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함.
- 교실 공간 구성 변화도 필요함. 모두 앞을 향해 앉은 교실이 아닌 서로 마주보는 원탁 책상이 있는 교실로 바뀌어야 함. 이를 통해 칠판만 바라보며 한 가지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 지향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배우는 내용도 달라져야 함. 우리는 인권 중심 교육과정을 제안함. 1교시 인권교육, 2교시 페미니즘, 3교시 노동권, 4교시 경제적 자립, 5교시 진로, 6교시 정치를 배워보면 어떨까. 교과목이 필요없다는 게 아님. 내 삶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배울 수 있어야 함. 학교는 교과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함.

1 시사인, 학교가 양아치같다. 2017

2 한겨레, 1등급 대 나머지...일반고는 학생부 차별. 2016

청소년 노동인권, 비전과 대안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홍승민, 김주환

성남시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전, 현직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입법 청원 하였고, 곧 조례가 제정되었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성남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를 초청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알바천국, 법무법인 등과 MOU를 맺어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노동인권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대한민국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보호받고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37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기초고용질서 점검결과(2018.1.)에 따르면, 17년 하반기 점검 결과, 총 3,002개소 중 2,424개소(80.7%)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4,61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조례 확장 정책 ‘우리들의 노동인권조례 사용설명서’ 제안

-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발의로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 이후 성남시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 중임.
- 성남시의 우수사례를 통해 다른 지자체의 청소년들도 조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배포하는 정책인 ‘우리들의 노동인권조례 사용설명서’ 정책을 제안함.
-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1. 정부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책임 강화
 2. 노동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
 4. 고용주 및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홍보

여기 청소년 있어요 -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등한 권리를

광주꿈드림청소년단×세상이 학교인 자퇴생
김연영, 정예은, 이상엽

광주꿈드림청소년단: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는 광주의 학교밖청소년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선발하여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2015년부터 운영되어 지금은 4기 광주광역시꿈드림청소년단이 운영되고 있음. 세상배움카드(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탑재, 대학 입시 설명회 시행 등의 성과를 냄.

세학자(세상이학교인자퇴생): 2010년부터 운영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출신의 성인, 자퇴를 고민하는 청소년, 보호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현재 16,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온라인 커뮤니티로의 역할(온라인 상담, 일상 나눔 등)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간담회, 캠페인, 모임 등을 운영함.

☑ 요즘 시대에 차별은 무슨?(학교 밖 청소년이 받고 있는 권리침해)

- 청소년 활동, 공모전 등의 홍보물에 지원 자격을 학생으로 기재하여 학교 밖 청소년은 참가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음.
- 청소년 우대 조건에 학생이라 명시하거나 학생증을 요구. 심지어 청소년증을 거부하는 일들도 있어 청소년 우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제도권 학교 재학생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투입되는 세금은 1/10 이하(고등학생 1년 공교육비 1,000만원 - 2014 교육부 / 학교 밖 청소년 90만원-2017 광주광역시 기준)
- 수시 강화 추세인 반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대학이 다수이고 또한 학교 밖에서의 활동을 학생부로 인정해 주지 않음

☑ 여기 청소년 있어요(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등한 권리를)

-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대학 교육제도 개편
 - 내신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내신을 대체할 만한 시험운영
 - 학교 밖에서의 프로그램을 생활기록부로 인정

— 교육 소외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특별전형 만들기

— 홈스쿨링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 학생 말고 청소년 캠페인

— UCC 등을 제작하여 인식 개선

— 청소년 우대, 공모전, 각종 활동 참가자 모집에서 학생이 아니라 청소년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

—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일원화(청소년증에 학생증 기능 탑재)

• 재학생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 미인가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예산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교육, 직업훈련)

— 공교육의 학생 1인당 교사 수에 준하는 수준의 학교 밖 청소년 지도자 확보

—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설치

중도입국청소년에게 꿈을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천화병, 황류드밀라, 류지민, 김혜란, 박미진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한국어과정, 공교육위탁과정, 검정고시과정 등 여러 단위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임.

❑ 왜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가?

-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이나 초기 정착 준비로 공교육 진학이 늦어지는데 이때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가 고등학교 졸업 전 만료가 되어 안정적 체류를 보장 받기 힘든 상황임.
- 초·중·고 입학 시 제출하는 해외학력 서류의 복잡한 공증절차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학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인과 재혼한 가정이나 부모 중 일방이 국적을 취득한 가정의 자녀들은 순수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대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

❑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 외국인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 연령 제한 상향 조정
- D-4 비자(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심사 조건 중에 하나인 부모 연봉, 재산 등 경제상황 삭제
- 해외학력 서류의 공증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일정기간 한국어교육 이수 후 학력심의를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 확대 운영
- 대입 외국인전형인 순수외국인전형의 지원자격을 재혼이나 귀화에 따른 부모 국적이 변동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1 ∞ (One finity)

유지연, 황유미, 엄영태, 허주희, 심레오

서울시 연합 동아리팀은 청소년자살예방활동, 청소년 미디어활동, 청소년정책참여활동 등을 하고 있음. 주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왜 만 18세인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가

- OECD 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가 아닌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 교육수준의 향상 및 정보화 사회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18세 청소년 또한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음.
-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지만 선거권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논리에 어긋남.
- 2007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고, 행복권의 신장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책을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와 권한을 부여해야함.

만 18세 선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 교과 외 정치관련 수업 필수화
- 청소년 의회 활성화
- 교육감 선거연령 16세로 하향
- 청소년 정당 활동 나이 제한 삭제
- 개헌을 통해 선거권연령을 18세로 하향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다

-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구시 수성구청소년수련관
배항현, 권나영, 안장현, 양자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수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선후배로 구성된 팀임.

❏ 왜 우리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원하는가?

- 과거에서 현재까지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오고 있지만 교육방식은 제자리걸음
- 가정의 중심이 되어버린 자녀의 입시
- 고득점만을 위한 단순 노동이 되어 버린 공부
- 천편일률적인 교육방식으로 인한 학생들 개개인의 특화된 능력 발휘 가능성 감소
- 목표의식 없이 오랫동안 앉아있지만 하게 하는 긴 시간표
- 교육의 본질 퇴색

❏ 우리가 원하는 교육제도의 개편을 위한 정책

- 새로운 고교학점제(기본과목은 오전에 필수)
 - 기본과목만 하고 오후에 개별 활동을 한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오후에 심화된 원하는 교육(선택)을 배움
- 내신 성적 산출방식을 등급제에서 자기개발기록서(가칭) 평가로 개편
- K-MOOC 의 대중화
- 대입 수시전형 개편
- 한국형 교육 네트워크 확대
- 기업 채용 정당성 여부 감사 실시
- 중등 3년 + 고등 3년 → 중등 6년으로 통합 또는 중등 2년, 고등 4년제로 개편

통일과 평화, 청년의 이름으로

한반도정책컨센서스

오세진, 김희령, 이유진, 김홍균, 이영찬

한반도정책컨센서스(사무총장 정우진)는 2016년 창립된 청년 주도 정책협의체로서, 매년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협의 회의를 주관하여 올해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 재단법인 여시재, 주한독일대사관, 통일연구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으로부터 후원 및 지원을 받는 청년독립단체임.

한반도 문제와 통일에 대한 청년의 무관심

- 우리나라 청년들은 통일이나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이 없음.
- 저성장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 밀려 어느 때보다 낮은 관심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청년들이 보여준 관심과 잠재력

- 기성세대에서의 남북문제에 대한 논의는 매년 정치적인 논쟁으로 귀결
-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당 논쟁에 피로감 및 무력감이 생김
- 청년 수준의 탈정파적인 담론의 장이 부재
- 하지만 청년들이 이번 평창올림픽과 남북회담에서 보여준 적극성은 청년들의 정치관심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맹아

우리 정부가 이를 위해 해야 할 일

- 대통령 부속 기관에 미래세대의견수렴기구 신설 / 민주평통 청년 자문위원 비율 확대
 - 의견 수렴 기구의 역할: 2030세대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분야별로 수집하여 이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매개 역할을 함. 의견 수렴 기구는 국회 입법으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기구의 운영은 분과의 세분화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남북경제분과 / 통일법제분과 / 외교안보분과 등)

- 통일부의 권한 강화

- 통일을 다루는 전문적인 부서인 통일부의 권한이 확대 돼야 함. 통일부장관을 총리급으로 승격
- 미래세대의견수렴기구를 권한이 확대된 통일부 소관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절함.

나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 숫자에 가려진 청년의 삶에 대해서 -

청년유니온
김병철, 송효원

청년유니온은 청년일자리·노동문제를 청년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2010년 창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임. 청년(만15~39세)이라면 고용형태(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정규직)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기획사업과 (넓은 의미의) 입법활동 및 거버넌스, 그에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함. 그리고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세
선
①

❏ 일자리가 늘어나기만 하면 청년의 삶은 나아지는가?

- 청년실업률 9.2%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청년들이 고통 받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으면 경제·사회적으로 설자리가 없기 때문임. 이는 열악한 사회안전망과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하는 인식 때문임.
- 지난 10년 간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21번 발표되었고, 지난 5년 간 청년일자리 예산은 11조가 투입되었지만, 청년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음.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은 이전보다 전향적인 측면은 있지만, 구직 청년보다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이번 대책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존 대책 기조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 이는 여전히 '눈높이를 낮춰라'의 연장선임.
-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청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첫 직장 근속기간이 평균 18개월에 불과하고, 대다수 청년의 퇴사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는 점이 단순히 일자리가 늘어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 일자리 밖의 안전망과 수평적인 일터, 휴식권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절실히

- 지금 청년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책은 일자리 밖의 안전망,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경력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임.

-
- 일자리 밖의 안전망은 미취업 청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의 전국화와 실업급여 대개혁이 필요함. 이는 일자리 밖에서의 기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임.
 - 청년이 말하는 일자리의 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임금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수평적 조직 문화와 적절한 근로시간, 적절한 생활환경이 중요함. 이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물론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국가재난수준의 청년실업이 청년에게 상당한 경력공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력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직접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정책 접근이 필요함. 이러한 정책은 청년에게 적절한 소득과 경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사자인 청년을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숫자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청년의 삶은 나아지기 어려울 것.
-

돈 벌이 수단이 아닌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한 민달팽이의 움직임

민달팽이유니온
이한솔, 권하늬

민달팽이유니온은 2011년에 창립된 청년 당사자가 직접 모여 구성된 조직임. 시민의 권리로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세입자 고충해결을 위한 주거상담 및 주거복지상담센터 운영, 세입자 네트워크를 통한 세입자 모임 지원, 사회주택 실험(달팽이집, 협동조합 공공주택 코디네이터 활동), 청년 주거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20대가 독립해서 ‘살아내기’ 까지

- 2017년도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빈곤율이 40%를 넘어섰음.(서울 40.4%, 민달팽이유니온)
- 주거안전실태조사(2017, 민달팽이유니온)에 따르면, 주거비, 시설 문제를 넘어서서 여성의 경우 안전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성 정치인들의 약속이 있었지만, ‘청년주거 7대 개혁과제’ 중 제대로 해결된 문제는 없음. (ex.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공급 등)
-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주거 문제 해결이 필요함.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위해, 청년 당사자의 정책 기획 권한 부여
- 4인가구 투기 중심이 아닌, 1-2인가구 세입자 중심의 주거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정책 입법

A solid orange circle containing the text '세션 2' in white. A thin vertical orange line extends upwards from the top of the circle.

세션 2

청년 멘토에게 듣는다

“쓸모없음”을 “쓸모있음”으로

최이현 모어댄 대표이사

2015~ 현재 모어댄 대표이사

2017.12 SBS 나이트라인 뉴스 초대석

2017.09 국제 업사이클링 컨퍼런스 발제

2016.11 청년벤처 포럼 어벤처스 대상

2016.09 LG소셜펀드 대상

2016.08 도전 K!스타트업2016 우수상,

2016.02 우수청년기업 중소기업청장 표창

2015.12 아시아소셜벤처대회 대상

세
션
2

가장 쓸모없음을 가장 쓸모있음으로 바꾸는 소셜벤처 모어댄의 창업 스토리

- 청년창업 생태계의 이해를 돕고, 창업 시 준비과정과 고려사항을 모어댄 사례를 통해 소개
- 실패를 줄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는 방법 제시

“다름”이 “재능”이 되기까지

김희수 커피지아 대표이사

2011.12~ 현재 coffeejia 창업자, 대표이사
2018.04 상암동 발달장애인 교육플랫폼 및 카페 개소
2017.07 사내 복지 카페오픈
2017.04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회적기업 수상
2016.06 하이서울 우수 상품 브랜드 선정
2016.04 장애인의날 서울시장표창
2015.0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해썬인증
2014.12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
2014.11 사회적기업인증
2013.05 예비사회적기업인증
2011.12 커피지아 법인 설립

☞ 커피사업을 시작하게 된 스토리, 발달장애인을 만나게 된 우연한 계기

- 커피지아 사업배경,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커피 철학
- 발달장애인과 첫 만남
- 발달장애인의 다름을 재능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들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커피지아

메모

메
모

메모

메
모

메모

메
모

메모

메
모

메모

메
모
